

물가 둔화 美, 9월 금리인하 무게... 한은, 10월 대응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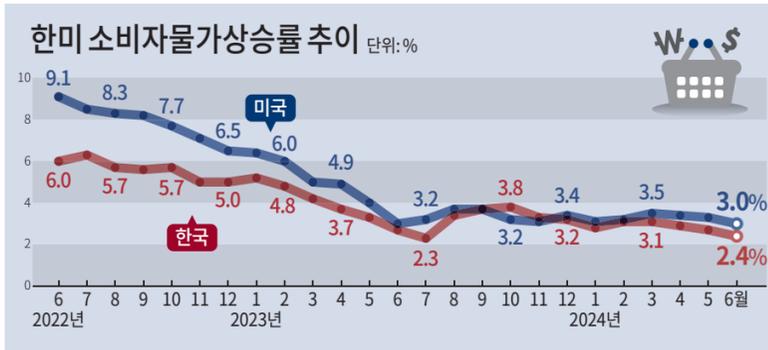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하락 고금리·고물가에 기업들 고용 줄여 한은 “외환시장 고려해 신중 대응 환율 부담, 조기 금리인하 어려워”

이르면 오는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대에서 3%대로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고용시장도 둔화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10월부터 인하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1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00%로 집계됐다.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88.7%, 50bp 인하할 확률은 11%다.

전날(15일) 오후까지만해도 25bp 인하할 확률은 88.7%로 동결확률은 11.3%를 기록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며 “두 목표는 (전보다) 훨씬 나



연방준비제도(Fed)	한국은행
7월 30~31일	11일
8월	22일
9월 17~18일	
10월	11일
11월 6~7일	28일
12월 17~18일	

자료/한국은행

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미국은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둔화하며 9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지난 2022년 6월 9.1%에서 올해 6월 3%까지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1월 3.1%였던 CPI는 3월 3.5%까지 오른 뒤 6월 3%로 내렸다. CPI에서 3분의 1은 주거비다.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와 집주인이 기대하는 임대료가 모두 내리면서 CPI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거비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개인소비지출(PCE)은 5월 기준 2.6%로 올 초부터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만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의 복병으로 작용했던 주거비까지 내리면서 오는 9월 물가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연준이 금리인하를 논의할 것이라 분석이다.

고용시장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0만6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35만3000명 증가한데서 3월 30만3000명으로 감소한 뒤 6월 20만6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3.8%→4.1%로 상승했다. 고금리·고물가를 버티지 못한 기업이 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연준은 금리인하를 위해

선 물가하락과 함께 고용시장 둔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고용이 줄면 소비자는 소득이 감소해 지출을 줄인다. 수요(지출)가 감소하면 물가하락,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월가는 연준이 7월 지표를 통해 방향을 분명히 한 뒤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과 맥쿼리는 금리인하시기를 11월과 12월에서 9월로 앞당겼다. 라자드 자산운용의 로널드 템플 수석시장전략가는 “9월 금리인하는 이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말했다.

◆韓, 미국보다 빠른 금리인하 어려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시기는 9월 이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2.4%로 4월부터 3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봤을 때) 금리인하를 논의할 만한 여건이 됐지만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400원대까지 오른 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1300원 중후반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다만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2.8원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앞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며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공공요금, 유가상승 등 물가상승압박이 많은 상황에서 한은이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내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은 “美 소비 감소에, 韓 수출도 추춤 예상”

美-유럽 소비 흐름 변화·수출 전략 유럽, 제조업 개선→소득·소비 증가 韓, 美 수출 줄고, 유럽 수출확대 예상

팬데믹 시기 급격히 증가한 미국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늘어난 초과저축이 고금리·고물가로 쪼그라들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지역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며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소비 중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에서 소비는 67.9%를 차지한다.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美, 초과저축 줄자... 자동차 등 소비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2분기 연속 3% 증가한 미국의 소비는 올해 1분기 1.5%, 4~5월 1.2%로 둔화했다.

서비스소비는 의료·금융·여가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했지만 재화소비가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IT기기 등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다. 자동차 소비는 지난해 7~12월 전기대비 -1.7%에서 올해 1~5월 -3.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IT기기는 같은 기간 9.9%에서 1.3%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고민지 조사국 국제종합팀 과장은 “저소득층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품 등 생필품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고금리·고물가상황이 길어지면서 초과저축(장기추세 수준을 웃도는 저축)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지며 초과저축은 2021년 8월 기준 2조1000억달러 규모였다.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며 올해 4월 초과저축은 -2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께 초과저축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일자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끼쳤다. 올해 2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17만7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21만

2000명)와 비교해 4만명가량 줄었다. 향후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비가 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과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누적된 초과저축이 올해 3월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생산→소득→소비 순환

반면 유로지역의 소비는 미국과 달리 이례히 회복하는 추세다.

이현아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유로지역은 미국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는데, 팬데믹 이후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의 실질소득이 부진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에너지 지출도 크게 늘어난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유로지역은 저축동기가 강해지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저축율이 크게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보다 2013~2019년이 높은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2013~2019년 18%대에서 2020년대 20%대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유럽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지난달 수입물가 다시 상승세... “1380원대 고환율 여파”

한은 ‘2024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수입 142.76, 한달 전 비교 0.7%↑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

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물가지수는 142.7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지난 5월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과 일부 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며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중동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지난 5월 84.04달러에서 6월 82.56달러로 1.8% 하락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6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380.13원을 기록했다. 5월 1365.39원 대비 1.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6.4% 올랐다.

과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한 화학제품도 수입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일부 화학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나프타 등의 물가가 상승했다”며 “이들의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중간재는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5% 및 0.7%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96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2.2%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

했다. 이 또한 환율 영향이 컸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0.3% 올랐다.

6월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7.3% 올랐다. 수입물량지수는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0%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7.7% 떨어졌다.

/나유리 기자